



-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

목상기도 다 같 이
찬 송 301장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일을 주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2. 몸도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짐 주께맡겨 벗을날도 멀잖네
나를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고전 11:1-2, 엡6:1-4 인 도 자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설 교 믿음의 큰 유산 인 도 자

- ① 음식 준비 /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상으로 차리면 안 되지만 간편한 음식을 준비했다가 예배 후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 ② 영정과 촛불 /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향, 촛불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 ③ 절하는 문제 /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죄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불신 가정에서의 문제
가족 전체가 불신 가정으로 제사를 드려야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된다. 이 때 분명하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 ⑤ 산소에 성묘 갔을 때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대표자가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면 된다. 불신 가정일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절할 때에 함께 서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⑥ 기타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들처럼 육신은 한줌의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조상들이 볼 때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더없는 우애와 사랑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이어야 하며, 조상들이 남겨 놓고 가신 훌륭한 뜻을 받들어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큰 유산"

(고전 11:1-2, 엡 6:1-4)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인간의 모든 생활과 보다 큰 사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고 복된 가정이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이 훌륭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남겨 주신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가정은 신앙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물질로 풍요함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복된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살게 된 것은 부모님이 진실한 신앙 유산을 물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목'이라는 유산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사람다워지고 가정다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남달리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 주신 유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족의 생명이 보전되며 참 교육이 실시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훈련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친교의 장, 서로 도와주는 협동과 화목의 장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 번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라는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모공경을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2-3)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효성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그 생활을 후손 된 우리가 본받고 지키며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명절입니다.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화목과 효성과 신앙의 유산을 길이 보전하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 송 588장 다 같이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